

일본 디자인그룹 “형이공방(型而工房)”의 활동과 업적에 관한 평가
-토요쿠치 카츠헤이의 디자인 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and Evaluation of Japanese Design Group "Keiji Kobo"
-especially on the designs of Toyokuchi Katshei-

서병기(Byungky Suh)

서울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교수

본 연구는 200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토요쿠치 카츠헤이(豊口克平)와 형이공방(型而工房)

- 2-1 형이공방의 결성과 연혁
- 2-2 토요쿠치 카츠헤이
- 2-3 1930~40년대의 일본 디자인계의 정황

3. 형이공방의 활동

- 3-1 실험연구 · 조사
- 3-2 설계 · 시작(試作)
- 3-3 강습회 · 영화제작
- 3-4 전시회 · 배포
- 3-5 형이공방의 재건

4. 가구 디자인

- 4-1 의자의 규범원형의 연구, 눈을 이용한 실험의자
- 4-2 의자의 인간공학적 접근
- 4-3 생활용구의 표준화에 관한 이념
- 4-4 카츠헤이의 가구디자인에 대한 인식

5. 형이공방의 평가

- 5-1 앞선 시대 인식
- 5-2 실용적인 활동
- 5-3 일본 디자인계에 미친 영향

6. 결론

참고문헌

(要約)

형이공방(Keiji Kobo)은 독일 바우하우스의 교육활동이 그 정점에 있던 1928년에 결성되어 전쟁의 기운이 짙어져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제2차 대전 직전까지의 약 10년 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건축의 새로운 사조를 표방하는 근대디자인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한 희귀한 자생적 디자인 연구단체로써, 일본이 서구 디자인 사조를 흡수하여 현대 디자인의 장을 화려하게 펼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상징적 단체이다.

형이공방에서는 산업시대를 전제로 한 새 시대의 생활공예-합리적인 생활기구를 추구함으로써 근대적 사고를 실천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공방의 작업은 조사·시작(試作)·실험·연구·전시회·강습회·주문판매·광고·집필이라는 많은 영역에 걸쳐있다. 그 활동은 결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진지한 것이었으며,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놀랍도록 기능주의 사고를 견지한 순수하고 투명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공방은 예술프고 규모가 적은, 10년 남짓 활동했던 연구 집단이었다. 그러나 조용했던 그 활동 속에는 불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으며, 오늘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과소평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오늘과 같은 발전의 이면에는 무수한 선각자의 기여가 있었을 터인즉, 형이공방의 그것도 디자인분야에 관한 한 빠트릴 수 없는 것 중 하나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의 일본 지식인들은 그들의 헌신과 활동이 대중의 삶의 질을 근대화시키는 데 하나의 기여가 되기를 하나같이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이공방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꽃피다 만 작은 바우하우스라고 평가할 만하다.

(Abstract)

Keiji Kobo is a unique self-generated design research group in Japan, which was founded in 1928 when Bauhaus movement was in its peak, and which lasted ten years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en any activity of the group became virtually impossible due to the war. With insight to see the future, the group aimed at Modern Design advocating a new spirit in architecture, an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sperity of Japanese Modern Design assimilating Western design trends.

Pursuing of craft works for everyday life--practical furniture works--Keiji Kobo actively executed various projects to realize modern philosophy. The range of the works of this group was very large: survey, mock-up, experiment, research, exhibition, lecture, order-based sale, advertising and writing. The works of the group were oriented to serious academicism, not compromising with commercialism. Considering the peculiar political situation such as Japanese Militarism, the spirit of functionalism that the group pursued was surprisingly academical and pure.

This group was relatively small and clumsy, which lasted as short as around ten years. However, strong motivation was in their seemingly quiet movements, and the influence of the group cannot be underestimated even with today's criteria.

There were a number of pioneers who contributed to today's prosperity of Japan and Keiji Kobo can be estimated to be one of the pioneers in the field of design. It was found that the contemporary intellectuals hoped that the commitment and activity of the group would contribute to modernization of the life quality of ordinary people.

In a sense, Keiji Kobo can be estimated to be a little Japanese equivalent for Bauhaus that could not fully bloom.

(Keywords)

型而工房(Keiji Kobo), 豊口克平(Toyokuchi Katshei), 日本近代 디자인史(History of Earlier Japanese Design), 雪型實驗椅子(Snow Form Test Chai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형이공방은 독일 바우하우스의 교육활동이 그 정점에 있던 1928년에 결성되어 전쟁의 기운이 짙어져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제2차 대전 직전까지의 약 10년 간 미래를 내다보는 헤안으로 건축의 새로운 사조를 표방하는 근대디자인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한 희귀한 디자인 연구단체로써, 일본이 서구 디자인 사조를 흡수하여 현대 디자인의 장을 화려하게 펼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상징적 단체이며, 일본 근대 디자인사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존재인 바, 그 내용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소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우하우스의 일본판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많은 자료가 전쟁으로 사라졌으나 훗날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그 개략적인 면모가 밝혀진 바 있다.

형이공방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관심 밖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바 없지 않으나, 서구 디자인 사조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근대화를 이룩한,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 국부를 일구어 낸 공통점이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이라는 존재에 대해 보다 소상히 알고 그들의 발전 배경에 어떤 노력이 깃들여 있는지를 이해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형이공방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그 성격, 의의, 업적을 논하고, 그 활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형이공방이 소개된 중요한 몇몇 문헌과 저널 및 근대 일본 디자인사 서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형이공방의 중심 인물 토요쿠치가츠헤이(豊口克平)의 자전적 회고 자료집 “형이공방에서부터”가 자료출처의 중심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자료는 1981년에 정리 발표된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연구기요에 있는 형이공방 자료를 참조하였다.

논지의 전개는 먼저 형이공방의 소개로써, 그 결성과 연혁, 1930~40년대의 일본 디자인계의 개황을 논하고, 보다 구체적인 형이공방의 여러 활동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특히 디자인 활동의 구체적인 면모를 다소간 파악하기 위하여 공방 활동의 백미라고 할 만한 의자의 인간공학적 실험으로써 ‘눈을 이용한 실험의자’에 관한 항목은 따로 떼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형이공방의 앞선 시대인식, 실험정신, 계몽활동의 의의, 생활가구의 표준화에 관한 신념, 일본 디자인계에 미친 영향 등을 논하고, 결론으로써 이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2. 토요쿠치 카츠헤이와 형이공방(型而工房)

2-1 형이공방의 결성과 연혁

<형이공방>이란 연구단체는 1927년 도쿄고등공업학교의 강사이며 30세의 젊은 건축가 쿠라타 치카타타(蔵田周忠, 1895~1966)가 학교를 갓 졸업한 5명의 제자들(小川光三, 松本政雄, 池邊義敦, 鈴木太郎, 豊口克平)을 규합하여 결성한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스터디 그룹을 모태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 그룹은 서구의 신흥 건축운동 특히 세세선과 빈 공방의 활동을 참조하여 일본의 주택과 생활을 개선코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둔 스터디 그룹인데, 이듬해 형이

공방이란 명칭의 연구단체로 정식 발족하였다.

<型而工房>이란 명칭은 <공방(型)>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形(shape)이 아닌 ‘型(Form)’이라는 공방(Workshop)’의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디자인의 외피적 스타일이 아니라 디자인 본질이며, 그 본질(프로토타입)을 형성해 내는 작업장이라는 뜻으로 공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활동의 취지를 표출하고 있다.

발족당시의 멤버는, 쿠라타 교수가 주재하고 9명의 멤버(池邊義敦, 伊藤鐵次郎, 岩井良二, 豊口克平, 中島賢次, 松本政雄, 小林登, 佐藤桂次, 齋藤四郎, 실내디자인의 토요쿠치를 제외한 모두는 건축 전공)로 구성되었는데, 1931년에 이케나베(池邊), 코마야시(岩井), 사토우(佐藤)가 떠나고 타카하시(高橋實), 테즈카(手塚敏三)가 새로이 참가하였으며, 급박한 전쟁준비 체제로 변한 1936년에 해산하기까지 약 10년간 크고 작은 활동을 계속하였다.

태평양전쟁으로 몇 명은 입대하여 참전하였으며, 나머지 인원도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위한 지원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서 형이공방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전쟁직후인 1947년 2월 토요쿠치와 마츠모토(松本) 등이 재창립 선언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 이 공방의 재건을 도모하였으나, 이미 각처에 소속되어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전쟁전과 같은 열정에 의한 힘을 결집하지 못하여 호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하여튼 형이공방에서는 1927~36년의 10년간 산업시대를 전제로 한 새 시대의 생활공예-합리적인 생활용품-를 추구함으로써 근대적 사고를 실천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가구, 의자, 아파트 실내 생활 표준 규격을 조사 연구한 세 차례의 실험연구보고서 <라포르트 1>, <라포르트 2>, <라포르트 3>을 발간하였고, 4차에 걸쳐 의자라든가 표준가구의 프로토타입을 설계·시험제작·생산하였으며, “새로운 생활공예”란 제목의 강습회를 개최하였고, 형이공방 표준가구류를 소개·배포·주문·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고 여성잡지에 표준가구를 소개하여 주문을 받아 얼마간 생산도 하였다.

형이공방은 자생적인 디자인연구그룹이었다. 그들은 당시 시대의 흐름인 아방가르드 조형활동의 일환으로 이 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 피폐한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취지로 이 공방을 결성한 것이었다. 그들은 주택을 중심으로하는 서구의 신흥 건축운동의 기술을 본받아 일본 주택이나 생활을 개선코자 하는 문제에 그 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형이공방이 바우하우스나 러시아 구성주의 운동과 같은 격렬한 조형이념의 일환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도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활동 년대가 바우하우스가 그 정점의 교육활동을 전개하던 바로 그 기간과 겹쳐 있으며, 그 활동취지와 내용이 놀랍게도 유럽의 그것 특히 바우하우스 이념과 정확히 합치된 기능주의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비록 그 활동의 규모가 작고 사사로운 것이며 대내외적 파급효과가 미미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선견지명과 시대를 읽는 헤안과 순수한 열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이공방의 여러 활동의 중심에는 상공성 산업공예시험소(研1)의 연구원(技官)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토요쿠치 카츠헤이가 등장하고 대부분의 업적이 산업공예시험소의 업무와 관련을 맺어 전개되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2-2 토요쿠치 카츠헤이

1896	출생
1928	도쿄고등공예학교 공예도안과를 졸업 (인테리어 디자인과 가구디자인 전공)
1927~ 28	형이공방 창립멤버.
1933	상공성 공예지도소 연구원으로 입사. 이곳에서 축적으로 재임했던 독일 건축가 Bruno Taut의 지도를 받음. 토요쿠치는 공예지도소의 활동의 축을 일본전통의 미술공예적 사고를 불식하고 근대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두고, 형이공방의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의자의 규범연구, 나무와 온천에서의 설형(雪型)에 따른 의자 지지면 실험과 같은 산업디자인의 기초연구, 예컨대 인간공학적인 실험을 전개하였다.
1932~ 78	<공예뉴스> 편집에 참가하고 쌍성간 집필활동을 하였다. 공예뉴스는 그 당시 발간된 산업디자인의 유일한 전문잡지로서 디자인의 해외 정보, 기초연구, 각종 세미나 등을 다룸으로써 일본 디자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간행물임.
1941~ 45	목재 비행기와 같은 대응재료를 연구.
1945	종전직후 물자결핍으로 허덕이는 주민생활을 위한 대체 재료에 의한 생활집기 개발에 전력하는 한편, 미군 가족 주거용 가구 디자인과 일본 시민들을 위한 표준가구 설계와 생산에 전력.
1954~	쿠와자와(桑澤) 디자인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함.
1956	일본 생산성본부가 편성한 <ID 조사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몇몇 디자이너들과 함께 40일간 미국을 여행하며 선진 산업국인 미국의 디자인계의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함.
1952, 1958	일본공예디자인협회(JIDA), 일본실내설계가협회의 지도적 멤버로 활동.
1953	공예시험소 내에 <기능시험연구소>를 개설하여 의자의 기능을 연구.
1957~ 59	일본항공의 DC-8 여객기 인테리어디자인에 참여.
1958~	몇 년간 올림푸사의 전자현미경을 비롯한 광학기기를 디자인.
1960	山口디자인연구소 설립. EXPO '67 몬트리올을 일본편의 인테리어 디자인. 신간세(新幹線) 열차 좌석 등의 아트 디렉팅. 64년부터 장남 코우(剛)가 입사하여 부친을 도움(형제 대표). 91년 사명을 '환경창안(環境創研)'으로 바꿈.
1959	26년간 몸담았던 산업공예시험소 의장부장직을 사임하고, 그 해 무사시노 미술대학 공예공업디자인과 주임교수로 자리를 옮김. 이후 18년간 인테리어디자인, 가구디자인 및 공업디자인을 가르침.(이후 명예교수) 그는 무사시노 디자인학부가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인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87	저서 <형이공방에서부터>
1991	사망.

2-3 1930~40년대의 일본 디자인계의 정황

쇼와(昭和)시대 초기인 1926~1930년은 조선 침탈에 이은 만주 진출, 러일 전쟁, 동남아 진출 등의 일본 팽창정책과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군국주의가 점차 형성되고 있던 시기로서, 일본 경제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외화획득을 위하여 해외 제품을 모방한 가구나등가 생활용품이나 잡화의 수출을 독려했고 있었는데, 낙후된 공업기술과 빈곤한 서민생활이 맞물려 있었고, 전통의 곁길에 갇힌 사고와 디자인 개선의지의 박약 등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당시 도안과를 가진 전문학교는 도쿄 미술학교, 료토 및 도쿄 고등공예학교의 세 학교 정도였고 한 학년 20명 정도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벽지 도안이나 상업광고 같은 취업이 용이한 그래픽디자인 분야로 진출하였고 토요쿠치처럼 실내디자인이나 가구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은 몇 명되지 않았다. 그밖에 전국에 10학교 정도의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실업학교가 있었다. 공업기술이 저조하여 요즘 같은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다루는 기계, 가정 전기제품은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감당할

기업도 디자인도 없었다. 당시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의복을 보더라도 긴자(銀座)를 거니는 여성의 화복(和服)과 양복의 비례가 100대 3이었다.(주2) 그러나 서서히 상업건축, 상류계층의 주택과 실내 및 가구를 시작으로 서양풍의 문화가 침투하여, 대중들의 생활도 다다미 생활 중심의 좌식 생활에서 신주택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일본의 주택 일부에 의자에 앉는 응접실을 서구풍으로 붙여 넣는 이른바 퓨전 문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이같은 풍조에 대하여 몇몇 젊은 건축가나 가정학 전문가는 과학적 합리화를 추구하여 생활개선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바, 급진적인 일부 건축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독일의 건축운동과 실천에 매료되어 소극적인 개선보다는 단숨에 신형건축을 실현코자 시도하여 지금까지의 양식적 모방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였다.

형이공방의 탄생도 이같은 조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1 서구디자인 도입을 위한 총체적 노력

당시 일본의 모든 분야의 지도적 위치에 처했던 지식인과 전문가들은 서구의 기술과 문화를 익혀 일본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무서운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 정부도 음양으로 이같은 취지에 힘을 실어 그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을 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공업생산품-잡화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무역시장에서는 서구 제품을 무차별적으로 신속하게 모방하여 수출하는 일본 싸구려 제품에 대한 악평이 드높았던 바, 서구 열강들은 여러 차례 클레임을 제기하고 각지에서 일본 모방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싸고 품질이 나빠기로 소문난 일본제품을 양질화시켜서 그 오명을 씻으려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그 타개책으로 많은 젊은 엘리트를 선발하여 국비로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유학시켰으며, 큰 도시에 산업공예시험소와 같은 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산업의 개선에 관심을 보였고, 각종 교육기관을 확충 정비하여 전통공예 대신 산업디자인과 같은 신 학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사회변혁이란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결실은 종전 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1940년대에 들어서서 전시체제로 돌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은 폐야폰 단절을 겪게 되었다.

종전 후 주둔하게 된 많은 미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주거 모습, 군사장비, 또 그들이 가져와서 배포하는 문화양식 등에서 서구문화의 보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실제로 목격하고 직간접적인 자극을 받았다. 이미 1940년대 이전부터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는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지도를 받았으며, 그 일환으로 미국 건축가 포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동경대지진을 견뎌내어 일본건축계를 놀라게 한 제국호텔을 설계하였고, 종전 직후에는 산업디자이너 레이몬드 로위가 피스(Peace) 담배갑을 디자인하여 디자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술한 것처럼 1956년에는 일본 생산성본부에서는 <ID 조사단>을 파견하여 미국의 선진 산업디자인의 발전상을 배워오려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파견된 13명의 디자이너들의 수첩에는 45일간 그들이 보고 견학한 미국의 대학, 대기업, 디자인사무소, 생산공장 등의 견학내용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일본으로서는 산업디자인 도입을 위한 접근의 최초의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여서, 예컨대 몇몇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미국이나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자사의 자동차 디자인을 의뢰하면

서 신중하게 그들의 디자인 방법을 익혀 곧바로 일본 독자의 자동차의 설계와 디자인에 착수하여 성공하는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기술과 디자인을 배워 익히는 데 하나같이 용이주도하고 열정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3.2. 세세션과 부르노 타우트의 영향

일본의 경우 1922년에 도쿄 고등공예학교(현 치바대학 공학부)가 국립으로 설립되어 공예도안과(공예조각부를 포함), 목재, 금속, 인쇄(사진부를 포함)의 각 과 외에 정밀기계과라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과 편성으로 일본으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교육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교육내용은 결코 그렇게까지 신선함을 품은 것은 아니었고 특히 토요쿠치가 개학하는 동안(1926~28년)에는 그 교육에 바우하우스의 어떤 편린(片鱗)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 전문학교의 교수들은 설립 당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었지만 주로 조형교육에 관해서는 그 시대 조형교육과 공예가 번성했던 빈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것처럼 방향적 정신에 불타오르면서도, 귀추가 불분명한 바우하우스 교육의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독일의 서적을 통해 표현파, 구성파의 조형이라는 가 세계의 움직임에 점차 순응해가고 있었고, 도쿄 고등공예학교의 쿠라타 교수와 같은 유럽파 젊은 건축가의 강의 속에서 바우하우스를 조금 알 수 있었다.

그 후 '미즈에', '건축기원(紀元)' 같은 건축지에 바우하우스에 관한 보도가 게재되었는데, 1930~32년에 걸쳐 바우하우스에 유학했던 미즈타니(水谷武彦)와 야마와키(山脇巖) 부부가 바우하우스의 폐쇄와 함께 귀국해서야 처음으로 그 전모가 명확하게 알려져서 조형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건축가 카와키타(川喜田煉七郎)는 이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긴자에 <건축공예연구소>(후의 신건축학원)을 설립하여 일본판 바우하우스의 기초조형인 구성교육을 시작하여 31년부터 '아이 시 울(I see ally)'을 출판, 신선한 조형의 사상과 기법을 선양했다. 32년에는 <신홍 독일건축공예전>이 개최되어 브로이어나 그 외 파이프 가구, 새로운 실내구성, 색채 등의 격렬한 실험건축의 면모가 일본에 전달되었다.

1928년에 쿠라타 교수를 중심으로한 겨우 몇 명에 의한 연구단체 <형이공방>이 그나마 당시 직접적 조형활동에 다소나마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반영한 유일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형이공방>에 서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향이라 하면 빈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당시 독일 건축의 조형을 대표하는 세세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준 중요한 한사람은 몇 년간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독일 건축가 Bruno Taut이다. 그는 독일공작연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1914년 쾰른 뉴 베르크분트 전시회의 유리관(Glass House)을 설계한 바 있는 인물이다.(주3) 그는 나치스 독일 치하에서 탈출하여 소련에 망명 중이었는데, 그와 교분이 있던 몇몇 일본 건축가들이 천거하여 일본에 건너오게 되었다. 그는 일본 건축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뿐더러, 1933년에는 상공성 공예지도소의 초청으로 촉탁으로 위촉되어 실내디자인과 가구디자인을 지도하였다.(주4)

3. 형이공방의 활동

형이공방의 연혁과 개요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바로 설명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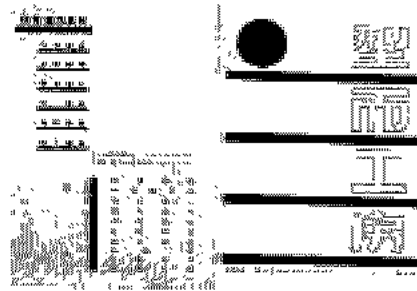
3-1 실험연구~조사

형이공방의 실험연구~조사는 「라포르토①②③」에서 알 수 있다.

1933년 라포르토 1호 "파이프 가구" (手塚, 松本)

1933년 라포르토 2호 "의자" (小林, 豊口, 齊藤)

1934년 라포르토 3호 "아파트의 실내도해와 숫자" (豊口)



[그림1] 형이공방 리프트 (1930년)

라포르토는 잡지 「국제건축」에 게재되었으나 후에 별래로서 독립하여 <라포르토>가 되었다. 라포르토란 명칭은 쿠라타 교수가 "어느 나라(경향)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리프트'라는 영어 명칭 대신에 에스페란토어로 '라포르토' 1, 2, 3...으로 한다."라고 천명한 만큼, 규격, 표준화를 목표로 했던 공방의 청교도적 자세가 표출된 하나의 예가 된다.

라포르토 1호 "파이프 가구": 1925년~1928년 경, 신건축운동 연구자에 의해 소개된 금속관가구는 장식의 생략, 단순한 형태, 비상하는 가벼움, 광택 있는 표면, 공기를 머금은 포름, 연속하는 커브 등, 근대적 특징을 넘쳐나게 드러내는 것으로 동인들을 압도했다. 파이프 의자의 연구에서 그들은 작은 사이즈의 파이프라도 커다란 저항력을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것, 일정한 파이프를 연속적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파이프의 탄력과 강한 구조에 의해 이제까지의 의자 같은 스프링재, 포강재 따위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 등을 소개하였다.

라포르토 2호 "의자": 라포르토②는 실내장치로서의 의자를 주제로 한 연구이다. 대지진으로 불탄 도쿄의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그 무렵, 형이공방에서는 의자의 실험연구를 개시했다. 의자를 사용하는 생활에 의해 주생활은 건강적·위생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이미지야말로 일을 하면서 다음 동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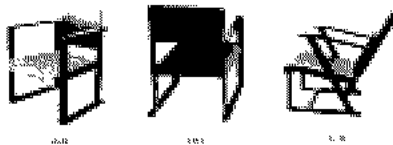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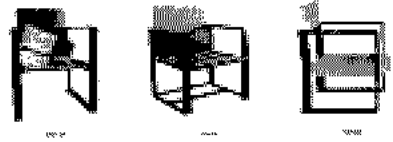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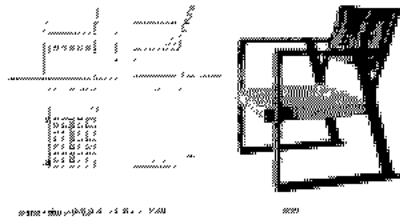
세부 내용은 ①Neue Mobil(Sitz Mobil)(小林), ②일본인의 의자의 스케일(Test chair, 즉 '실험의자'에 관한 조사)(豊口), ③의자의 한 조사(A표, B표)(齊藤)로 되어있다.

동일부재(同一部材)로 제작된 형이공방 표준형 2호, 3호의 의자는 라포르토 1호의 파이프 의자의 연구를 참고로 하고 있다.

라포르토 3호 "아파트의 실내도해와 숫자": - 라포르토③의 조사·연구는 잡지 「부인의 벗」 1926년 1월호에 게재되었던 '신가정의 물품조사'를 건본으로 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표제는 <아파트의 실내도해와 숫자>로 토요쿠치가 집필하고 있다. 조사는 타이칸(代官)산 아파트(철골 콘크리트로 만들어진)의 독신자 아파트와 가족 아파트에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도해에 의한 수집작업만이 아니라 실내의 총면적, 총용적에 대한 가구 기타 일상용품류의 평방·입방적인 대비, 활동면적·용적 등의 수치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행하고 있다.

3-2 설계·시작(試作)

간소한 오펡재(伍平材)와 평판으로 이루어진 팔걸이 달린 의자를 원형으로 발췌하여 앞서의 측정실험 숫자적 결과와 양산적 기술, 재료와의 결합검도에 의해



[그림2] 팔걸이 의자구성의연구시작 (1927~32년)

제 1차 설계시작을 행하였고, 작은 의자, 티 테이블, 책상, 옷장, 유닛식 조립 책장을 완성하였다.

이 표준의자를 기본으로 하여 티테이블과 그 외의 각종 가구의 치수, 구조, 재료를 통일하였다. 공방 동인 중 한 사람 이토우(伊藤幾次郎)가 책임자로 경영을 맡고 있었던 가구제조 회사 <가가옥(加賀屋)>에서 시작이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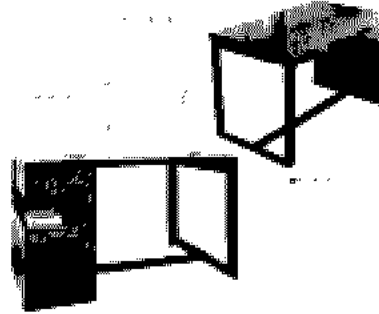
제 2차 설계시작은 가정용 표준가구로서 작은 의자, 팔걸이의자의 등판, 다리의 조인트 구조가 3각 결합되어 그 형태가 크게 변했고 견고해졌다. 등판, 좌판은 등나무로 엮었다. 그 외 조립 티테이블, 화장대 및 스톨(라이팅 데스크 겸용), 책상(식탁 겸용) 및 옆서랍, 정리장 A, B형, 옷장. 이 중에서도 간소하고 합리적인 정리장, 옷장은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차 설계시작은 학생용 표준가구로 진행되었다. 접은 다다미 구조의 책상, 뷰로 식 책상, 이것들은 둘 다 불필요한 것을 없앤 콤팩트한 것이 되었다. 또 학생의 신체측정 데이터에 따라 다리 높이를 바꾸는 작은 의자, 소형의 조립형 정리함, 학생 의복에 맞춘 옷장, 제 1차 때의 정리장 외 게시판, 휴관 등을 시작품으로 만들었다.

제 4차 설계시작은 유아용 표준가구에서 의자 겸 티테이블, 또한 쌓아올려서 장이 되기도 하는 다용도 가구, 분해식 원형 테이블, 놀이용 상자 차, 장난감 장, 대형 경량 도색(塗色) 적목(積木)에 덧붙여서 종래의 학생용 옷장, 정리장으로 세트르 만들었다.

그 외 스틸 파이프의 의자와 테이블의 설계 시작, 소위 오늘날의 유닛 가구의 설계, 시작도 행해졌다.

수년간의 기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 설계, 시작, 발표를 계속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고, 또한 이 제안을 시장과 직결하기에는 서민 가구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너무도 부족하였으나, 군국주의 풍조가 강화되는 1939년경까지 그들은 젊음의 이상과 정열로 이 10년 간을 보내왔던 것이다.



[그림3] 책상 (1931년)

3-3 강습회·영화제작

형이공방은 “새로운 생활공예”를 추구하여 동인들을 강사로하여 강습회를 기획하였다.

강습회의 기록은 적고 그 자료에 따르면 강습회는 2회 개최되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제 1회는 <새로운 주택과 가구의강습회>로서 개최되었다. 주최는 형이공방, 후원은 국제건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회장 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개최 년도는 1930~31년으로 추정.

제 2회는 신주쿠(新宿紀伊國屋서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그 강습회 주제는 <새로운 주택과 가구>. (1932년 5월 10일~14일)

제 1회 강습회는 6월 1일~11일에 시행되었는데, 조명, 가구의 발생적 고찰, 구성, 가구의 발생에 관한 영화, 평면의 고찰, 일조문제, 주택문제, 형이공방 리포트, 조명학교 견학, 주택기능의 의학적 고찰, 집합주택 등이 그 주제이며, 강사로는 세키(關, 도시마 조명학교장), 카와키타(川喜田, 신건축공예학교 설립자, 독일 건축사상 소개), 츠지우라(土浦, 형이공방이었다.

제 2회 강습회는, 현대공예의 형태와 색채(仲田定之助), 실내도장(清水正雄), 독일 주거의 실례(藏田周忠), 생활과 의복(豊口克平), 의자의 연구·장관의자, 목제의자(手塚敬三, 齊藤四郎), 형이공방 제 2회 연구영화·부엌과 식기의 정리, 서구 도시의 건축(쿠라타 교수 촬영)이란 내용으로 개최되었다.

새로이 귀국한 초기 멤버 쿠라타 교수의 영화 <서구 여러 도시의 근대상>과 이에 관련된 <독일 신주거의 조사의 실례> 특히 Siedlung(독일어 ‘공동주택’, 즉 아파트먼트)의 실제 강연은 큰 자극을 주었다. 당시 건축, 실내, 가구, 공예 등의 종합적 강습회가 열렸던 일은 획기적이었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70명이나 되는 청강생이 모였던 것으로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3-4 전시회·배포

공방이 정례 모임의 형태로 시작했던 1928년 가을, 신주쿠(紀伊國屋서점)에서 제 1회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그때까지의 “회화적인 공예”에서 결별해야 함을 천명한 하나의 프로파간다였다.

여기에 전시된 작은 의자는 후의 표준형 의자의 원형이 된 것으로 거기서 표현된 규격제에 의한 구성, 다다미 깔기의 사용 등 합리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일반인들보다도 당시의 문화인, 화가, 문사, 건축가의 관심을 끌었는데, 결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의 전시회이기도 해서 그 내용은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전시회 종료 후, 동인들 사이에서 반성이 일어나 시장조사, 생활통계, 생활실태 조사, 테스트 체어에 의한 자제 실험 등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제 2회 전시회는 1930년경, 제 1차 제품의 개량안, 예를 들자면 베

니어 면적이용이라든가 3각 결합구조의 의자, 탁자, 책상, 정리장 등시장성을 근거로 한 개량정형화가 완성되었을 즈음 개척되었다.

제 3회 전시회는 1934년 타카시마야(高島屋)의 살롱에서 <신 표준 주거실내장식전>으로 개척되었다. 당시 형이공방에서는 작은 의자, 팔걸이 의자, 탁자, 책상, 책장, 옷장, 정리장의 정형이 제시되어 '형이공방 표준가구'가 생겨났던 무렵이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신 표준 주거로서 서재, 거실의 2개가 모델 룸의 스타일로 전시되었다.

제 4회 전시회는 1937년 <부인 공론 표준가구 및 아동 학습용 가구 진열회>로서 개척되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형이공방의 연구조사자료, 실험 데이터, 기능적 도해 등을 패널로 해서 벽면에 늘어놓고 주로 '학생용 가구' 즉 <8호 다리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의자> <9호 접이식 책상> <10호 유닛 식 책 서랍> <11호 뷰로 식 책상> <12호 칠판> 등이 주요한 신제품 전시물로서 소개되었다.

부인공론(婦人公論)과의 관계를 갖게 된 1936년부터 1년간 형이공방측은 가구에 관한 칼럼을 계속 발표하였다. - 1936년 10월호 <중산계급 취향의 가구>, 10월호 <우리들의 집> 사진을 인쇄하여 공방표준가구를 개별적으로 설명, 1937년 2월호 <취학아동에게의 건강한 가구>, 2월호 <아이들의 가구> 공방제품 설명, <형이공방·유아의 가구>, 4월호 <파악(把權)의 기능>, 5월호 <식기의 형태와 기능>.

잡지 부인의 벗(婦人之友)사와 부인공론은 이 규격가구의 광고를 싣고 주문을 받아 8호·의자(5엔 50전), 9호·책상(13엔), 10호·책 서랍(9엔 50전), 11호·책장 달린 책상(22엔), 12호·칠판(2엔 80전)에 팔았다.

공방으로서의 판매가격의 5%를 수입으로서 운영비에 보탬다고 전해지고 있다.

생활의 개선·합리화를 외치고 있던 사회사조 속에서 회화적 공예를 벗어난 형이공방 표준 가구는 그 규격화된 재료와 형태, 표준 치수, 새로운 생활로의 제안·선전 등으로 진보적 가정주부에 대한 설득이 예상 이상의 효과를 올렸다. 전시회·배포·집필이라는 작업의 일관된 흐름은 "새로운 생활공예"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구·방법(소프트 웨어)이었고 오늘날의 디자인 사고로 이어지는 뛰어난 근대적인 수법이었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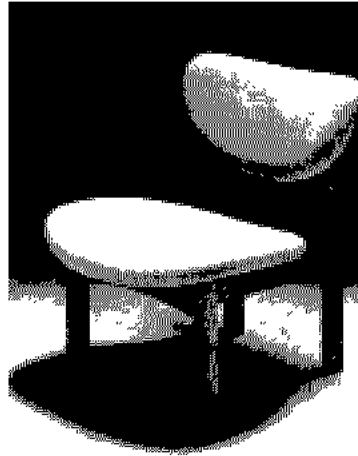
3-5 형이공방의 재건

형이공방의 활동은 1938년경을 경계로 종말적 이산기(離散期)를 맞고 있었다. 종말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상세하지는 않지만 흩어졌던 동인들은 전후 공방 부흥을 결의하였다. 그 재건계획은 전후 귀국했던 마즈모토(松本)와 토요쿠치에 의해 추진되었다.(1947년 2월) 아름다운 평화일본의 부흥을 아름다운 문화(건축·공예) 수립으로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그 취지는 과거의 형이공방을 이어받고 발전시키자는 새로운 이상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토요쿠치 등이 시도했던 형이공방 재건계획은 동인들 개개인 의 일 관계(松本은 愛知현 공업지도소에 근무, 豊口는 산업공예시험소에 근무)로 이전처럼 하나로 뭉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4. 가구 디자인

4-1 의자의 규범원형의 연구, 눈을 이용한 실험의자

1934년 타우트에 의해 <규범원형의 연구>라는 것의 프로토타입, 즉 기능, 재료, 구조, 경제, 조형이라는 기본적 5개 조건의 올바른 균형에 의해 사회성을 지닌 가구가 기획·생산·판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 하에 기초실험의 지도를 하는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림4] 합리적 휴식의자
-토요쿠치 의자

타우트가 지도한 <의자의 규범원형> 팀(豊口克平, 安藤良美, 劍持勇, 岡安順吉)은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훌륭한 레포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타우트가 떠났지만 팀에서 정리해 놓은 <의자의 규범원형의 연구 레포트>는 매우 귀중한 것이고 일본의 신흥가구 설계에 있어서 커다란 자극을 부여했다고 평가된다.

타우트가 지도소를 떠난 후 <의자의 규범원형> 팀은 테스트 체어의 설계를 시작하여 많은 노력 끝에 실험을 완성하였다. 타우트에 의해 반복된 시작 의자는 흠 잡을 구석 없는 성과와 기본적인 질에 의 반성과 함께 하나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반대했던 기능실험도 수많은 의자에 직접 생활 속으로 접할 수 없었던 팀원들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 중에서 가장 특기할만한것은 토요쿠치와 겐모치(劍持勇)가 나루고(鳴子) 온천에 출장하여 시행했던 <설형에 따른 의자의 지지면 실험>이었다. 테스트 체어에 의해 일본인의 지지면의 높음, 깊이, 경사각도 등의 결론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자체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실험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토요쿠치는 지지면 형성의 매체로서 석고, 모래, 소금 등도 고려해보았지만 점성과 응고성을 공유하는 가소(可塑) 매체를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곤혹스러워 했는데, 샌다이에 겨울이 찾아와서 하늘에서 눈이 어지럽게 흩어지면서 내리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회상하고 있다.(주5)

<사실 눈의 연성(軟性)은 적절한 습도를 갖고 있고 적당히 덧붙이거나 삭체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안정된 형태로 고정시킬 수도 있다. 그것을 중단, 횡단하여 자유곡선자로 측정하여 널빤지 위의 모조지에 옮겨 그려갔다. 그러나 눈보라 속에서 행하는 이 작업은 곤란함과 피로움이 수반된 독특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측단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일단 완성된 순간의 그 희열은 비록 그것이 시시한 연구였지만 정말 기쁘고 가슴이 가득 찬 경험이었다. 이같은 실험은 세상에서 아무도 한 적이 없다는 긍지와 만족감을 심어주었다. 이론이나 실험에 필요한 물건이나 환

경은 많았지만 이론이나 데이터로는 실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고, 특히 소프트한 요소를 충분히 포섭하는 인간공학의 고도의 판단력이 수반되는 의자 같은 것은, 타우트가 주장하듯이 체험만이 유일한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4-2 의자의 인간공학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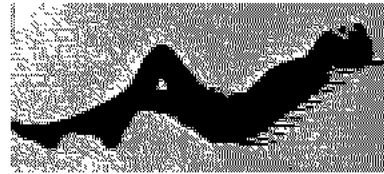
연구팀은 3년간 의자의 실험을 계속했던 바, 실험대상이 되는 사람은 당시(1953년경) 일본인의 기준체위의 남녀가 선택되었다. 남자 162cm, 여자 152cm에 가까운 사람이다. 실험장치는 2장의 엑스펜디드 메탈에 강봉(鋼棒)을 몇 개를 맞춰 끼우는데, 자유롭게 뺄고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피실험자는 우선 일을 할 때의 두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실험된다. 그 하나는 책상을 향해 뭔가를 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 그 두 번째는 종종 요추부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등을 뒤로 젖혀서 휴식을 취하는 자세. 이 두 자세를 취할 때에 필요로 하는 각 부분의 치수, 경도, 곡면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지지면을 어떻게 짜 맞추는가에 따라 하나의 사무용 의자의 기능에 대한 형태의 표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림5] expanded metal 망을 이용한 앉는 자세 측정. (리빙 디자인 1956. 7)

이 실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추출하였다.

1. 의자는 자세의 변화에 순응하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2. 남녀 공용의 경우는 여자의 표준 수치에 따르는 편이 좋다.
3. 좌면 높이는 무릎 뒤의 밑 정도에서 결정하고 앞쪽 끝을 약간 둥글게 내린다.
4. 좌면을 약간 뒤로 기울여지기 한다.
5. 엉덩이 부위, 등 부위를 좌우로 약간 만곡(彎曲)시킨다.
6. 접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 좌면을 지나치게 두껍지 않은 쿠션을 깎는다. 엉덩이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쑥 빠지지 않도록 한다.
7. 좌면의 깊이는 무릎 밑 뒤부터 골반 뒷 끝까지의 길이보다 적게 한다.
8. 잠정적 휴식을 위해 등면과 좌면이 이루는 각도를 종래 보다 크게 한다. 등면의 높이를 견갑골 하단에서 멎게 한다.
9. 요추골반 상단부가 지탱되면 집무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10. 종래의 책상과 의자 사이의 거리는 너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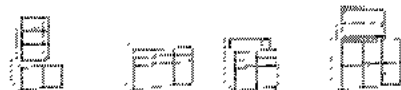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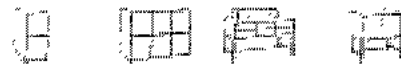
[그림6] 휴식자세 측정

휴식의자의 경우도, 휴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 형태나 치수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극히 일반적인 담화 등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령의 몇 가지 원리와 기준을 추출해 내었다.

4-3 생활용구의 표준화에 관한 이념

토요쿠치를 비롯한 형이공방의 디자이너들은 국민대중이 일본풍도에 맞는 건전한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생활용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공방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할애하였다. 그들의 대중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반영한 디자이너의 의식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토요쿠치가 1946년 6월호 <과학과 생활>에 기고한 글 중에서 인용한 몇 구절이다.



[그림7] 프란츠 웨스터의 조합가구 (1930)

<.....전쟁이란 국민의 정신적 통일의 필요와 물자 결핍의 해결을 위해 방향 지워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장래를 약속해주는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미래의 가정과 건전한 국민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확립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일본의 지리, 풍토, 기후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과거의 민족성과 생활습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전제로 해서 생활 방식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주나 식사의 올바른 방법, 의복의 형식 등은 모두 새로운 의식 하에서 다시 생각되어야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요긴한 대중의 생활 필수품의 표준화라고 해서 고정된 규격만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기준의 범위에 따라 자유로운 고찰과 기술이 활용되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표준화라는 문제는 저수준이 요구되어 최대수의 대중에게 기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현재와 같은 근로계급의 수입으로는 식생활만 해결하는 데도 허덕대는 실정이므로 상당히 낮은 생활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제 2의 문화적 기준

에 대해서는 전술했듯이 생활의 양식의 확립과 함께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 수준을 한결음씩 높은 레벨로 높여야 하고, 편리·견실·풍족한 생활감정에 감싸인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쓰기에 편하고, 능률이 높고, 서로 호환성을 지니게 하는 것(예를 들자면 냄비를 이중 냄비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공동의 뚜껑으로 만든다든가, 그릇의 덮개와 병 뚜껑의 치수를 동일하게 한다든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재료 상에서는 소재로부터 재료를 취하는 데 낭비가 없는 형태를 생각한다든가 국내 자원으로서의 공급량, 적재 그리고 질, 더 나아가서는 가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는 견고성을 충분히 음미하고 시험되어야 한다. 조형적인 입장에서 간소하고 아름답게, 친숙해질 수 있는 형태와 색조가 신중하게 음미되어, 유별난 취향은 극력 배제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생활 관습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면 의외로 익숙해질 수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경제상 저렴할 것이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양산성, 수송성 등에도 합당한 조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형이공방은 국민가구(식탁, 식기장 A, B형, 간이 싱크대, 5종의 사무용 책상)의 표준화 작업을 완수하여 제안하였다.

4.4 카츠헤이의 가구디자인에 대한 인식

토요쿠치 카츠헤이는 형이공방 활동뿐만 아니라 공예지도소의 연구원의 자격으로 공예뉴스를 비롯한 매체에 많은 논설과 평론을 게재하였다. 그의 시대인식에 관한 단서를 엿보기 위해 가구디자인에 관한 몇 가지 기고문을 인용한다.

4.4.1 일본의 동양풍 가구들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동양풍이라든가 일본적이라든가 하는 것의 특이성을 어떤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상품 상에서 표현해 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확실히 일본의 수공적인 조각기술이나 일본풍의 산수, 풍속, 화조(花鳥)의 의장은 완전히 옛날의 일본적인 구현에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또한 일본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공예적인 좋은 점을 살려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시키기는 어렵다.이 점에서 예전에 일본에 체제하면서 일본을 눈여겨보고 많은 작품을 만들었던 브루노 타우트나 페리안 여사(프랑스 가구 디자이너)를 떠올리게 된다.>

<... 일본적인 잔가지에 집착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본적, 동양풍의 재료를 살리는 것도 재미있다. 예를 들자면 느티나무, 칩, 삼목, 대나무 등의 토산적 재목이나 곧은 나뭇결을 능숙하게 살린다가, 조각한 작은 파편을 평면의 일면 일부에 조각해 넣는다든가, 그 조각을 이중(異種) 목재나 칠(漆) 도장으로 모양을 마꾼다든가 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조각과 같은 국부적인 기술의 집착이 아닌 전체의 조화를 감안한 재료와 형태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과도한 장식에 피하고 마무리의 능숙함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불편한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양풍의 일본적 물건의 본격적인 연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자랑스러운 물건을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수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창출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주6)

4.4.2 일본의 근대 가구

<...일본의 수공예적인 대나무, 등나무 등의 뛰어난 제품이나 목재, 특히 침엽수, 칠(漆)과 같은 특수하면서 유용한 도료에 의한 가구 구성이 꼭 그저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전통 주거 형식의 뛰어난 요소로서 다다미, 장지문, 병풍, 차 끓이는 대, 경대, 찬장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이를 현대적으로 육성해 가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빈곤한 국민 전체의 생활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여 일본적인 경제와 국토 조건 하에서 어떤 양산 가구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과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주7)

<...좁디좁은 면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 서민의 생활에서 독립된 침실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 가족이 침대에서 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흥을 준다. 그 디자인 중에는 다다미에 그대로 매트리스판을 깔아서 자는 방법, 평장히 낮은 대를 낮에는 대형 소파로 사용하는 것, 몇 개의 유닛 대를 조합하는 것, 벽에서 끌어내리는 형식의 것 등 모두 종래의 독립침실, 침대의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방 면적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극대화시키고자 애쓴 것으로, 이 침대의 형식은 벽면, 창, 마루, 장과 그 외의 가구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였다. 유용성으로 보자면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서 그 처리가 무척이나 일본적이었다.>(주8)

4.4.3 등가구·대나무 가구와 페리안의 작품

<...등가구(藤家具)와 비슷한 매우 장식적인 의자들이 메이지에서 타이쇼 시대에 걸쳐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 수출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상당히 진부한 형태의 물건들이었다. 최근 들어 공예지도소가 다소 새로운 디자인과 구조의 대나무 가구나 대나무와 목재를 조합한 여러 종류의 가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대나무 가구는 전쟁 돌입 시대에 등나무를 대용으로 하여 등장한 것으로 현재에 와서도 이 가구들은 업계에 있어서 어떤 지도성을 가진 것으로서 기준 시범이 되어있다.샤를로트 페리안 여사는 뛰어난 디자이너이고 10여년 전 일본에 초청되어 왔을 당시, 일본의 여러 가지 공예기술을 구사하여 타카시마 가게에서 전시를 했던 바, 그 독특한 센스에 우리가 경탄했었는데, 그 작품에는 각종의 대나무 제품이 있었고 그 대나무 제품들 가운데는 키도코로(城所右文)씨의 수법을 더욱 발전시킨 대나무 의자도 몇 종류 있었다. 그 외에 대나무를 짜맞춘 갑판(甲板)의 탁자, 또 활처럼 휘어진 어린이 의자(등근 대나무로 구성한)의 몇 종류도 있었다. 그것들은 브루노 타우트씨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통적인 공예기술의 새로운 개척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귀중한 사례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후 수많은 대나무 재료의 이용활용의 예가 발표되었으나 이처럼 우리 기억 속에 강하게 남지는 못했다.>(주9)

5. 형이공방의 평가

5-1 앞선 시대 인식

황폐에 따른 이합집산,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이 극명하게 노출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도시화, 공업화 사회 상황 속에서

개혁자가 꿈꾸던 것은 종합화·통일화였다. 예를 들면 건축이라는 종합예술을 통해 일상적인 영역과 관계짓는 것이다. 이를테면 “건축의 이름으로 모든 조형활동을 종합하고 회화·조각·건축이 일체가 되어 통일예술을 종합한다.”라고 선언한 그로피우스의 주장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시대는 이처럼 통일화의 기술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Siedlung’이 성행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던 것이나 바우하우스의 설립과 활동이나 모두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이공방의 활동 또한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하는 이념에서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보았거니와 그 작업은 조사·시작·실험·연구·전시회·강습회·배포회·광고·집필이라는 많은 영역에 걸쳐있다. 행이공방의 일관작업에 의한 방법은 어설피지만 하나의 통합적인 디자인 활동(디자인 프로세스의 조직화=합리화)이었다. 생활의 개선을 기치로 내 건 실질적인 작업은 예를 들자면 의자라는 것을 통해서 행해졌다. 거기에는 생활의 질향, 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재료의 규격화, 간단명료한 구조, 사이즈의 표준화 등이 통일적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행이공방의 활동은 이론대로의 실험과 이론적 근거에 의거하여 이론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운영해 보려는 합리주의적인 실험활동을 계속했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실용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성과를 보인 감이 있고, 바우하우스의 예에서 보듯이 총체적인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의 이론적 추구·표현활동으로는 숙성·승화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고 만 조형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새로운 사조를 체험하고 갖 귀국한 쿠라타 교수 외에는 9명의 행이공방의 구성원 자체가 의욕만 앞선 미숙한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집단이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목표로 내세운 활동 이념의 빛은 조금도 퇴색하지 않는 것이었다.

행이공방의 목표와 실천은 미숙하기는 하더라도 20세기 서구사조의 도도한 흐름에 놀랐도록 일처하고 있다. 바우하우스가 설립되었던 것과 비슷한 사회적 배경 밑에서 결성된 행이공방은 바우하우스의 이상을 정통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를 선취했던 선협적 산업디자인 활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2 실용적인 활동

5-2-1 학구적 자세와 실험정신

행이공방의 작업은 많은 영역에 걸쳐있다. 그 활동은 결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진지한 것이었으며,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놀랐도록 순수하고 투명하였다.

expanded metal을 이용한 <실험의자(Test Chair)>에 의한 인체와의 관계에 대한 치수 측정>과 <의자의 규범원형 연구>, 나루고 온천에서의 <설형에 따른 의자의 지지면 실험>은 특별한 보조설비 없이 이룩한, 실험정신에 충만한 소박하고 창의적인 연구이며, 선구적인 연구였다고 평가된다.

5-2-2 계몽활동

행이공방이 펼친 여러 가지 활동은 과거 전근대적 생활양식의 불합리를 불식하고 합리적 생활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계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각성에서 구도적(求道的)인 이

념을 품고 전개된 것이었다.

5-2-3 생활기구 표준화

앞서 4-3항에서 행이공방이 목표로 지향하는 바의 일본풍토에 맞는 건전한 생활양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생활용구의 표준화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재론은 생략한다.

5-3 일본 디자인계에 미친 영향

행이공방의 주장은 그 후 상공성 공예지도소의 「표준기구의 연구」(1933년 安藤良美), 「독립기구에 의한 의자식화(椅子式化)」(1933년 劍持勇), 「서로 짜서 한 벌로 만든 가구」(1934년), 「의자의 표준에 관한 연구」(1934년), 「의자의 규범원형의 연구 I」(1934년), 새로운 공예(의자)를 형성하는 요소를 다우트의제창지도에 따른 기계·재료·구조·형태·경제로 나누어 결합시켜 연구한 「의자의 규범원형의 연구 II」에 이끌려서 상공성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그 후,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침체되었지만 전후의 황폐·부흥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기운 속에서 다시 등장했다.

그것은 미국군의 점령이라는 체제 하에서 행해진 것이다. 제 2차 대전 중의 미국에서는 전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군사기계의 기계, 가구, 칼라 컨디셔닝 등의 인간공학적인 연구가 성대하게 행해져 인간에게 주는 그 심리적, 육체적 효과가 인정되고 있었다. 그런 합리주의적인 방법이 패전→황폐→부흥 속에서 주장되었던 것이다.

또한 진주군(進駐軍)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그 서양식 생활풍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어 서양식 생활·의자식 생활에로의 생활 개선이 그다지 저항 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토요쿠치가 소속되어 있었던 산업공예 지도소는 이런 기운에 힘입어 인간공학적인 연구, 진주군 주택 가구의 생산 등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다시 착수한 생활 개선의 움직임은 그 후 「학교용 가구의 JIS와 디자인」, 「의자의 지지면의 기능과 실험」(소화 27년~28년), 「의자의 인간공학적인 실험연구」(치바대 오하라(小原)연구실), 「주택공단의 플랜」 등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행이공방의 디자인 활동은 오늘날의 디자인계(교육을 포함해서)를 형성시킨 하나의 표준적(생산적)인 사고가 되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6. 결론

언급한 것처럼 행이공방은 어설피고 규모가 적은, 75~65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10년 남짓 활동했던 연구집단이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는 1981년에 무사시노 대학 연구소에 의해 다소간 정리되어 일반에게 알려졌으나, 아직도 안개 속의 전설처럼 많은 부분 모호하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보다 뚜렷이 깨닫게 된 것은, 일본의 오늘과 같은 발전의 이면에는 무수한 선각자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과 행이공방도 일본 디자인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단체라는 사실이었다.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의 일본 지식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헌신과 활동이 대중의 삶의 질을 근대화시키는 데 하나의 기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글에 거론한 많은 디자이너들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토요쿠치와 그를 에워싼 사람들의 결집된 의지와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결론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행이공방의 활동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하나는 과연 이들이 보여준 의지와 노력이 어디에서 나왔

는가 하는 이념과 태도에 관한 정신적인 면에서의 분석이며, 또 하나는 형이공방의 구체적인 디자인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

6-1 정신적인 면에 대한 평가

1. 형이공방의 배경에 있던 동인(動因):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본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 것은 소위 그들의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도쿠가와 정권에 전해진 유교문화, 특히 주자학은 충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효'의 이념에 주된 가치를 둔 데 비해 일본은 주군에 대한 충성과 무(武)를 중시하는 '충'의 이념에 주된 가치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선비'와 '사무라이'는 같은 유교사회의 지배계급이자 엘리트였음에도 우리가 정(靜)적이고 방어적인 성향을, 일본은 동적이고 호전적인 성향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은 방어적인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형이공방의 이념과 개척정신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 형이공방 이념에 대한 평가: 앞서 보았거니와 형이공방은 주로 실무적,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였고 바우하우스와 같이 총체적인 문명비평에 따른 형이상학적 이념을 앞세우면서 활동하지는 못했다. 젊은 쿠라타 교수와 9명의 멤버들은 미숙한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영역 또한 매우 국지적이고 한정되어 있었다. 바우하우스의 그것처럼 체계 있고 조직적이지는 못했으며, 정부나 교육기관 같은 공식적인 후원도 없는, 사적인 스타디 그룹 같은 성격의 단체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서구사회가 처한 상황과 거의 같은 일본에 있어서, 형이공방은 바우하우스적 이상을 정확하게 일본 사회에 실천한 선협적 산업디자인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이공방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꽃피다 만 작은 바우하우스라고 평가할 만하다.

6-2 디자인 활동에 관한 평가

형이공방의 평가는 앞서 5절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1. 학구적 자세와 실험정신: '실험의 자'와 '실험에 따른 의자' 지지면의 실험'은 근대 인간공학 발전사에 있어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것이다. 헨리 드레이퓨스의 인체계측을 비롯한 인간공학 분야가 주목된 것은 대강 1930년을 기점으로 하고 제2차 대전을 전후하여 크게 발전했던 바, 형이공방의 그것은 상호 정보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년대가 거의 미국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특히 expended metal을 이용한 앉은 자세의 실험이라든가, 설형을 이용한 의자 지지면에 관한 실험은 연구 기법상 가치 독창적인 것이었다.

2. 생활가구의 표준화: 군국주의 시대의 폐허나 다름없는 여건에서 일본인의 생활 양식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열망으로 이들이 기획하고 추구했던 생활가구의 표준화 시도는 마치 전후 영국 정부 주도의 대규모 복구운동 Utilitarian Design(1941~1951)을 연상시킨다. 물자부족으로 고심하던 영국과 여건이 흡사한 일본 시민의 생활을 최소한의 자재를 이용하여 합리화시키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한 흔적은 영국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3. 계몽활동: 일본의 전근대적 생활양식을 서구식으로 합리화하

기 위해 형이공방이 펼친 활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전시, 강습, 집필, 주문판매 등 여러 가지이며, 그것은 매우 순수했고 비상업적이었다.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모하는 디자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한 그들의 활동은 비록 소규모이기는 했으나 적절했다. 특히 여성잡지 광고를 통한 주문판매방식의 시도는 디자인 사회운동의 모범적 실천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6-3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1.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해방 후 전쟁의 참화를 겪고 피폐해진 국도를 재건해야했던 우리나라의 근대화 역사를 일본의 그것과 견주어 보면 여건상 많은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디자인 분야의 경우, 우리의 많은 선구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찬란한 오늘이 있게 해준 데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숙연함과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우리의 초창기의 디자인 활동은 사회적 당위성과 실천방법에 관한 논의를 성숙시키는데 서툴렀고 (전쟁과 정치적 격변으로), 디자인을 습득한 인적자원이 너무 적었으므로, 일본과 같이 지도자 그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전개시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운 느낌을 갖게 된다.

산업디자인이란 개념이 구체화되어 회화나 공예와 분리되어 전공으로 학제에 반영된 것이 70년대 초였음을 보더라도, 우리의 산업디자인이 힘을 얻게 된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2. 또 한가지, 무사시노 대학의 연구소가 주도면밀하게 노력하여 자칫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형이공방의 활동 전모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데 대하여, 그들의 역사정리와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게 된다. 우리도 과거, 특히 근대화 초기의 디자인사에 관한 알려지지 못한 많은 자료들이 있을 터인즉, 그에 대한 발굴과 정리는 우리 시대의 요청이자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초창기 우리의 선구자들의 활동의 세세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야만 우리도 굳건한 뿌리가 있는 디자인 국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豊口克平: 型而工房から - 豊口克平とデザインの半世紀, 美術出版社, 東京, 1987
- Philadelphia Museum of Modern Art: Japanese Design -A Survey Since 1950, Harry N.Abrams, 1994
- JIDA: 精緻の構造-Industrial Design Works in Japan, 六耀社, 東京, 1983
- 柴久庵憲司: GKの世界, 講談社, 東京, 1983
- 豊口協: IDの世界, 鹿島出版, 東京, 1974
- 勝見勝: 現代デザイン入門, 鹿島出版, 東京, 1979
- 通産省 製品科學研究所: 工藝ニュース總集編 第1卷~第8卷, 丸善, 1983
- 桑澤デザイン研究所: 桑澤デザイン研究所十年の歩み, 1963
- 豊口克平: 型而工房とその家具のデザイン研究, 島崎信, 1980
- 日本デザイン小史 編輯部: 日本デザイン小史, ダヴィッド社, 1970

註:

- 주1: 1928년 상공성 공예지도소라는 명칭으로 센다이(仙台)에 창설되어 당시의 디자인센터 구실을 한 초창기 유일한 진흥기관. 1943년 공예지도소의 주관청인 상공성이 폐지되어 공예지도소는 생활물자국에 이관됨.
- 주2: 형이공방에서부터, p65
- 주3: Pevsner: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p179
- 주4: ibid(2) p.23
- 주5: ibid(2) p.108~111
- 주6: 공예뉴스, 1949년 10월호
- 주7: '건설정보' 1954년 3월호
- 주8: '신주택' 1959년 6월호
- 주9: '공예뉴스' 1949년 8월호